

“액터스 소극장 재개관 기념공연”



드물어서

배워서

혼자서

원작: 나탈리아 킹스버그  
 각색·연출: 손민  
 출연: 구민주  
 김정연  
 안정현  
 손민

• 2005년도 무대지원사업 선정작  
 • 2005년도 상반기 사랑티켓 참가작

드물어서. 배워서. 혼자서.

2005. 3. 15(화) ~ 30(수)  
**액터스 소극장**

평일 : 오후 7시 30분 / 토 : 오후 3시, 6시 / 일 : 오후 4시

• 공연문의 : 극단 051)469-6484 / 극장 051)611-6616 / cafe.daum.net/acen2000 / acen2000@hanmail.net  
 •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사랑티켓) / 동보서적 / 영광도서 / 문우당서점 / 남포문고 / 청하서림 / 면학도서 외 시내 유명 예매처

대표 인사말



극단 "아센" 대표  
구민주

나는 내 시에서  
돈 냄새가 나면 좋겠다.

뺏뺏한 수표가 아니라 손때 꼬깃한 지폐  
청소부 아저씨의 땀에 절은 남방 호주머니로  
깃잎 같은 만원권 한 장의 푸르름  
나는 내 시에서 간직하면 좋겠다.  
퇴근길의 뽁적지근한 매연가루, 기름칠한 피로  
새벽 1시 병원의 불빛이 새어나오는 시  
반지하 연립의 스탠드 컨 한숨처럼  
하늘로 오르지도 땅으로 꺼지지도 못해  
그래서 그만큼 더 아찔하게 버티고 서 있는

하느님, 부처님  
썩지도 않을 고상한 이름이 아니라  
먼지 날리는 책갈피가 아니라  
지친 몸에서 몸으로 거듭나는  
아픈 입에서 입으로 깊어지는 노래  
절간 뒷간의 면벽한 허무가 아니라  
지하철 광고 카피의 한 문장으로  
뚝 떨어지는 습습한 고독이 아니라  
사람사는 밑구녕 후미진 골목마다  
범벽한 사연들 쓸어안고 버리고 달인 시  
비평가 하나 녹이진 못해도

늙은 작부 뜨듯한 눈시울 적셔주는 시  
구르고 구르고 어찌다 당신 발끝에 채이면  
쩨렁! 하고 가끔씩 소리내어 울 수 있는

나는 내 시가  
동전처럼 닳아 질겨지면 좋겠다.

-최영미 <詩> 전문-

시인의 이같은 간절한 마음처럼,  
연극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길.  
아주 먼 시간 후에도 그러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길.....  
이러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연극을  
생각하는,  
극단 "아센"이 될 수 있게 새로운 작은 힘을  
보태려 합니다.  
눈은 밤사이 소리없이 내려 사람들을  
경이로움으로 이끌 듯  
보이지 않는 듯, 존재하지 않는 듯, 그렇게  
극단 "아센"은  
불특정 다수 관객의 마음 속으로 젖어들게  
노력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축하의 말

삭막한 부산을 적신 폭설처럼



극단 "미리내" 대표  
박범식

며칠 전, 부산에 거주한지 30 여  
년 만에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엄청난 눈이 내렸다. 금정산과 해  
운대 해수욕장과 태종대의 절경  
을 끼고 있는 부산은 매력적인 도  
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눈 한  
방울 구경할 수 없었던 부산의 겨

울은 삭막한 도시임이 또한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선  
입견을 배반하고 엄청나게 내려준 눈이, 아이들을 들떠게 만들  
고 강아지와 술꾼들을 즐겁게 만들고, 부산에도 눈이 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

연극하는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고달프고 힘들었다. 텅 빈 호  
주머니, 삶이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눈빛, 가도 가도 끝이 보이  
지 않는 고달픈 여정, 텅빈 객석, 그나마 위안으로 마신 한잔의  
취기가 남에게 객기로 비취졌을 때의 비참함,

우리 이웃집에는 텃밭에 고추를 키우는 초로의 부부가 살고  
계신다. 따님들이 효성이 지극해 돈을 각출해 유럽여행을 보내  
드렸는데 이 부부는 유럽여행중에 고추가 말라 죽을까봐 밤 새

워 걱정하는 바람에 난생 처음으로 하는 유럽 구경을 망쳤다는  
푸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몇 푼 안되는 돈이라도  
그것이 생명과 관련된 일일진데 농부는 작물을 걱정하고, 선생  
은 학생을 걱정하고, 정치인은 국민을 생각하고, 연극인은 관  
객을 걱정해야한다.

극단 아센! 혼신의 힘을 다해오던 호민 대표가 자리를 물러  
나고, 호민 대표와 함께 극단을 이끌어 왔던 구민주씨가 새로  
운 대표로 자리를 바꾸면서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연극을 준비  
하였다. 뼈를 깎는 2개월 여의 연습기간 동안, 이때까지 그렇  
게 하여 왔던 것처럼 이들의 노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항상 너  
덕지 않는 살림살이에 비굴함이 없이 깨끗하게 연극을 지켜왔  
고, 아무리 하찮은 공연이라도 최선을 다해왔고, 관객을 위한  
마음가짐이 "이러해야 하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만든 연극  
인, 이제 젊고 유능한 단원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둘이서, 셋이서, 혼자서"의 이 연극을 부디  
많은 관객이 관람해서 뜨거운 감동을 느끼고 100여년만에 폭  
설을 맞은 부산처럼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연출 노트



연출  
호민

♥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사명을 이해하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의지를 파악하는 일이며, 그것이 타인이나 외부가 아닌 자기 내부분제의 해결을 통해 생의 의미를 깨닫는 일이다.’ -어느 철학자의 일기 중에서-

사랑에 대한 자유의지를 마음껏 구사하며, 지독한 사랑으로 결혼에 골인한 남과 여!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각자의 사랑방식에 의한 또 다른 방법으로 빛나가 버리고, 아무일 없듯이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 언저리엔 처연한 이기심만이 자리잡는다.

고뇌와 절망을 거친 양자택일의 실존!

그것은 사랑을 가식적인 환상으로 혹은 한 순간의 불장난으로 오염시키면서 본질적인 사랑에 관한 도덕적 불감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역설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의 가치관에 대한 처절한 경종이요, 그 본질을 꿰뚫는 숙연한 성찰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소유욕과 존재욕을 부각시켜 이 시대의 사랑관에 준엄한 실존의 질문을 던지는 이 작품은, 그래서 더욱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산하며 사랑의 본질에 대해 무감각해진 우리네의 불감증에 질타를 가한다.

이렇듯 무겁게 짓누르는 직품의 주제를 극적인 형상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연출은, 아름답고 재치있는 언어로 조율하는 자연스러운 극 대사의 묘미와 깊이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고, 인물간의 심리적인 이중성을 인물성격화의 양상블로 극적인 힘을 배가시켜 가면서, 그 뒤에 엄숙하는 아픔과 고통을 연극 특유의 무대적인 시각화로 이끌어내려 한다.

작품의 무게 만큼이나 각 인물 군상들의 내면적인 독특한 심리를 구현해 내기 위한 배우들의 고통과 무게도 컸던 이번 작품에 최선의 노력을 보태주신 배우, 스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히려 심리적인 정서가 강한 극이라는 이유가 배역에 도전하고픈 열의를 이끌어내게 한다면서 연출인 나 자신보다 더욱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신 두 여배우님들께 특히 감사드리며, 작품에 대한 우리들의 열정이 무대위에서 관객과 함께 공유되는 마지막 힘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작품 줄거리 & 인물 군상

♥ 남편과 이혼하여 위자료로 물려받은 저택에서 혼자 살고있는 '테레사'의 집에 하숙을 원하는 철학과 대학생 '엘레나'가 방문한다. '테레사'는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지내는 외로움과 불안을 견디지 못하여 방세 대신 집안 일을 거들며 말벗이 되어줄 젊은 입주자를 원했고, '엘레나'는 금전의 여유가 빠듯하지만 붙임성 좋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로 서로의 조건이 부합된다. 그녀들은 서로에게 만족하며 대화를 나누고, '테레사'는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시절과 '로렌조'와의 만남과 사랑, 결혼, 그리고 이별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며 여전히 '로렌조'를 그리워하는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 와중에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두 사람.

어느 날 '테레사'가 집을 비운 사이 '로렌조'가 방문하게 되고 '엘레나'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한다.

'엘레나'가 공부를 이유로 집을 나가기로 한 날, '엘레나'는 자신과 '로렌조'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고백하고, 모든 희망과 신뢰를 상실한 '테레사'는 제어할 수 없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끝내는 '엘레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이 작품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지니고 있으나, 아름답고 재치있는 언어로 조율하는 자연스러운 극 대사의 묘미와 인물 간의 심리적인 이중성이 연기적인 앙상블로 어우러진 인물성격의 조화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 로렌조 (호민)

테레사의 전남편, 보헤미안 기질을 지닌 낭만주의자.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하지만 테레사를 만나 인생을 탕진시켰다고 여겨서 이혼, 그러나 하숙생 엘레나에게 반해 그녀와 열애를 벌인다.

♥ 테레사 (구민주)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낸 그녀는 로렌조를 만나 참사랑을 알게되고, 정신적, 물질적 지주로서의 그를 평생의 반려자로 여긴다. 비록 이혼을 당했지만, 자의적으로 그런 현실을 거부하며 로렌조를 갈구한다.

♥ 엘레나 (김정연)

테레사의 집에 하숙하러온 철학과 여대생. 영리하고 쾌활한 그녀는 현실에 대한 신분상승 의지가 강하며, 테레사와 서로 의지하지만 로렌조를 만나 그와 사랑에 빠짐으로서 테레사를 배신하고 결국 테레사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 그림자 & 어린테레사 (안정선)

CAST

♥ 테레사 役 / 구민주

(gumihoacen@hanmail.net)

- 1990.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 1998. 제16회 부산연극제 최우수 연기상 수상 (불 좀 꺼 주세요)
- 2001. 제19회 부산연극제 우수여자 연기상 수상(날 보러와요)
  - 現. 극단 '아센' 대표
- 작품경력 - <그 여자 이름은 이순례> <이혼의 조건> <불 좀 꺼 주세요> <묘지클럽> <홍도야 울지마라> <날 보러와요> <마담M의 초상> 등 다수 작품 출연



♥ 로렌조 役 / 호민

(acen2000@hanmail.net)

- 1981. 국풍 '81 전국대학연극제 신인상 수상
- 1991.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 1993. '아센 연극 스튜디오' 대표
- 1998. 부산시립극단 창단 단원 / 現. 극단 '아센' 상임연출
- 작품경력 - <장산곶매> <서푼짜리 오페라> <아가멤논 대왕> <대머리 여가수> <날 보러와요> <양파> <돌아서서 떠나라> 등 다수 작품 연기, 연출



♥ 엘레나 役 / 김정연

(yunee0515@hanmail.net)

- 2003.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 現. 극단 '아센' 정단원
- 작품경력 - <한 여름밤의 꿈> <다리위에서 바라본 풍경> <뇌우> <문제적 인간 연산> <유리 동물원> <홍도야 울지마라> <여보세웁!!! 누구세요???)> 등 다수 작품 출연



♥ 그림자 & 어린 테레사 役 / 안정선

(nrssk09@hanmail.net)

- 現. 동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2년 재학 중
- 극단 '아센' 준단원



STAFF



연출 / 호 민



기획 / 서 용 우



무대감독 / 김 석 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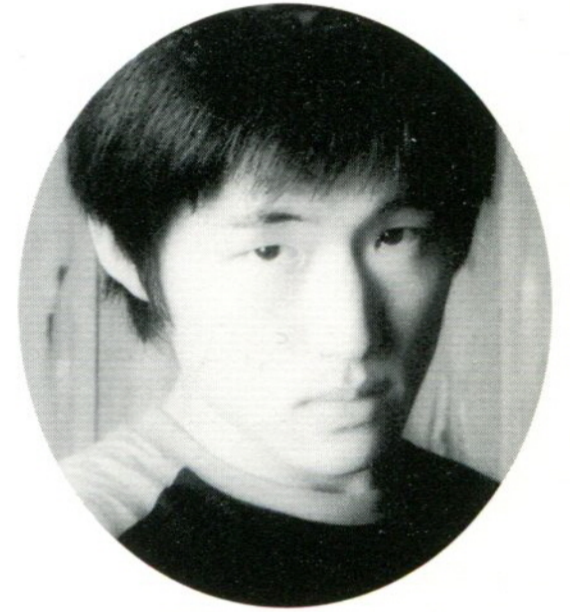
무대디자인 / 호 준 철



조연출 / 박 재 영



의상 / 최 수 희



조명 / 허 원 규



분장 / 김 선 미



소품 / 김 민 정



음향 / 김 연 주



안무 / 안 정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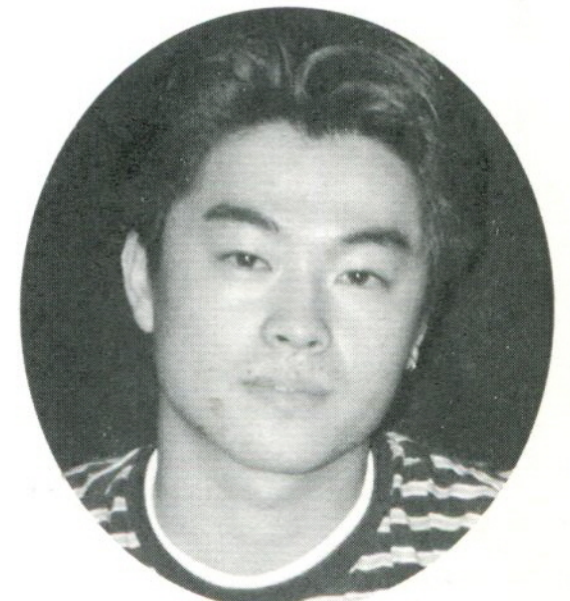
기획보 / 황 정 옥



진행 / 김 희 지



진행 / 이 영 희



장치 / 서 정 옥

# 모시는 글

나는 내 시에서  
돈 냄새가 나면 좋겠다.



극단 "아센" 대표  
구민주

뻗뻗한 수표가 아니라 손때 꼬깃한 지폐  
청소부 아저씨의 땀에 절은 남방 호주머니로  
깟깟 같은 만원권 한 장의 푸르름  
나는 내 시에서 간직하면 좋겠다.  
퇴근길의 뻑적지근한 매연가루, 기름칠한 피로  
새벽 1시 병원의 불빛이 새어나오는 시  
반지하 연립의 스탠드 쿨 한숨처럼  
하늘로 오르지도 땅으로 꺼지지도 못해  
그래서 그만큼 더 아찔하게 버티고 서 있는

하느님, 부처님  
썩지도 않을 고상한 이름이 아니라  
먼지 날리는 책갈피가 아니라  
지친 몸에서 몸으로 거듭나는  
아픈 입에서 입으로 깊어지는 노래  
절간 뒷간의 면벽한 허무가 아니라  
지하철 광고 카피의 한 문장으로  
뚝 떨어지는 습습한 고독이 아니라  
사람사는 밑구멍 후미진 골목마다  
범벅한 사연들 쓸어안고 버리고 달인 시  
비평가 하나 녹이진 못해도  
늙은 작부 뜨듯한 눈시울 적셔주는 시  
구르고 구르고 어찌다 당신 발끝에 채이면  
절렁! 하고 가끔씩 소리내어 울 수 있는

나는 내 시가  
동전처럼 닳아 질겨지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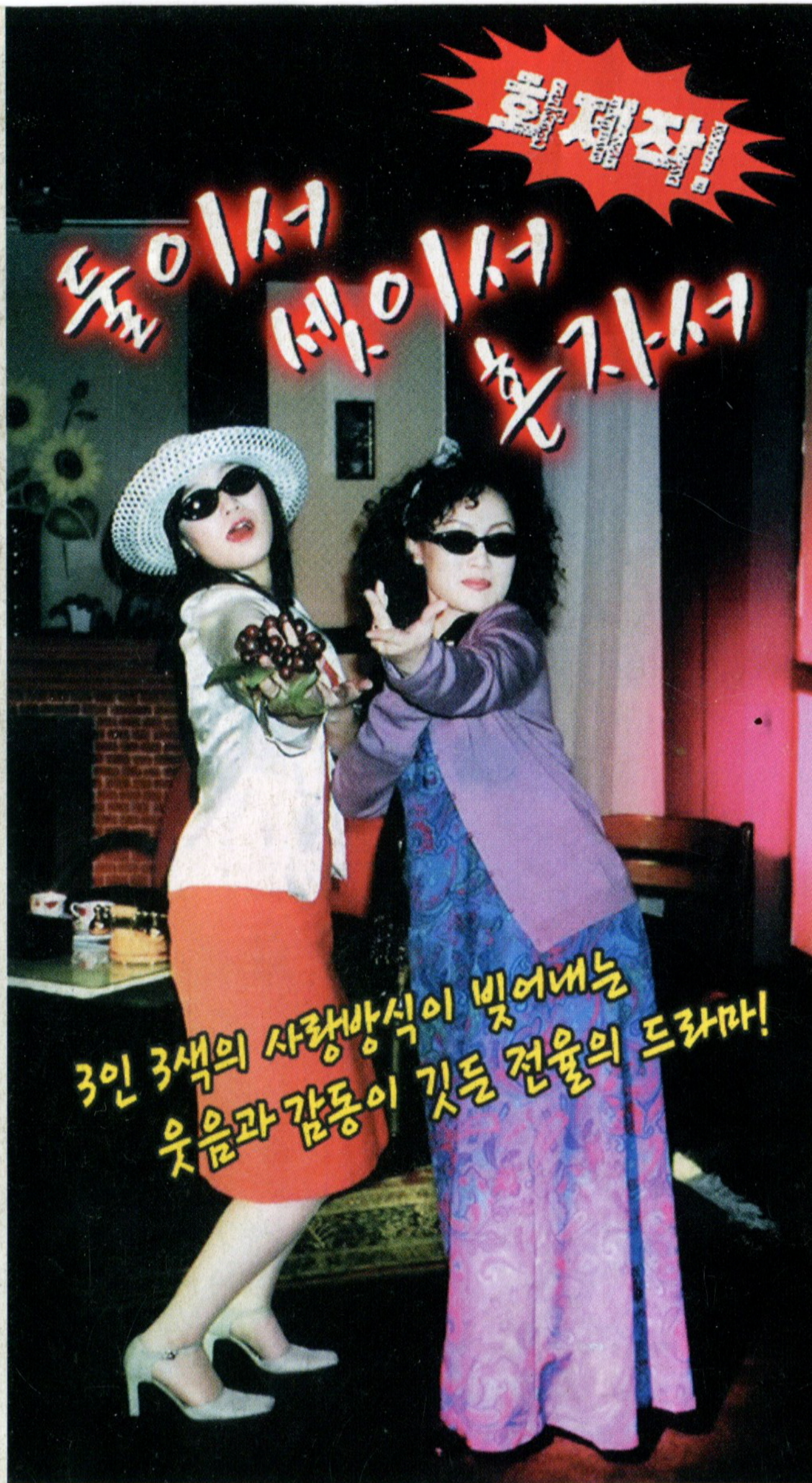
-최영미 <詩> 전문-

시인의 이같은 간절한 마음처럼, 연극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길. 아주 먼 시간 후에도 그러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길.....  
이러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연극을 생각하는, 극단 "아센"이 될 수 있게 새로운 작은 힘을 보태려 합니다. 눈은 밤사이 소리없이 내려 사람들을 경이로움으로 이끌 듯 보이지 않는 듯, 존재하지 않는 듯, 그렇게 극단 "아센"은 불특정 다수 관객의 마음 속으로 젖어들게 노력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 공연 예정작

2005년 겨울을 뜨겁게 달궈줄 두 남녀의 삼콤 액시코메디!!!

# 주 & 민



3인 3색의 사랑방식이 빚어내는  
웃음과 감동이 깃들 전율의 드라마!

육교 ■ KBS홀 수영→  
■ 남천동지하철 1번 출구 ■ 하이마트  
■ 액터스 소극장  
↓ 삼익비치

현매 일반	15,000
학생	10,000
예매 일반	12,000
학생	8,000

劇團 아센 특·별·기·획·공·연·작·품  
사랑티켓 참가작  
극단 아센  
동에서 백에서 홍에서  
3인 3색의 사랑방식이 빚어내는  
웃음과 감동이 깃들 전율의 드라마!

원작: 나탈리아 긴스버그  
각색·연출: 윤민  
출연: 구민주, 최수희, 김희지, 윤민

2005. 6. 22(수) ~ 7. 3(일)  
액터스 소극장  
평일: 오후 7시30분 / 토: 오후 3시, 6시 / 일: 오후 4시

- 공연문의: 극단 051)469-6484, 011-9346-6484, 011-887-7099 / 극장 051)611-6616
- 인터넷예매: 바다무대 cafe.duam.net/pfree, cafe.daum.net / acen2000, acen2000@hanmail.net
-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사랑티켓) / 동보서적 / 영광도서 / 문우당서점 / 남포문고 / 청하서림 / 면학도서 외 시내 유명 예매처

## 사랑하나 - 테레사 (집착적 사랑)

이 극은 3인3색의 사랑방식이 빚어내는 사랑과 애증에 관한 삼각관계를 다루는 작품이다. 그들 각자는 자신들만의 사랑 방법으로 서로를 이해한다. 겉으로는 신뢰와 우정, 믿음을 공유한 듯 보이지만 실상 그들이 지닌 지독히 이기적인 사랑의 방식은 강요와 무례와 억지로 무장되어 있으며, 결국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된다. 웃음과 감동의 이면에 내재한 걱정과 전율의 드라마... 사랑의 본질을 오도하는 현대인의 자기기만적인 사랑법을 들추어내어 사랑의 가치를 되돌아 볼 계기를 본 작품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 사랑들 - 엘레나 (도발적 사랑)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소유욕과 존재욕을 부각시켜 이 시대의 사랑관에 역설적 질문을 던지는 본 작품은 아름답고 재치있는 언어로 조율하는 자연스러운 극 대사의 묘미와 인물간의 심리적인 이중성이 인물성격화의 양상들로 극화되어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수작이다.

## 사랑셋 - 로렌조 (이기적 사랑)

극단 '아센'이 창단 5주년을 맞이하여 심사숙고 끝에 선정한 <둘이서, 셋이서, 혼자서>는 초연 당시 독특한 무대 시각화와 출연 배우들의 연기적 양상들로 극적 완성도를 드높였던 작품으로서 새로운 중견배우를 영입하고,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수작으로 만들었다. 이에 특별 기획 공연으로 다시금 무대에 올려 작품의 감동을 관객과 함께하고자 한다.

# 삼 성 안 과

라식수술 · 백내장수술 전문  
이 병 준 원장  
하단오거리 204-2275

## Cast



호 민 / 로렌조 役

1981. 극동 81' 전국대학연극제 신인상 수상  
1991. 경성대 연극영화과 졸업  
1993 '아센' 연극스튜디오 대표  
1998 부산시립극단 창단단원  
現 극단 '아센' 상임연출  
작품경력  
<장산곶매> <서푼짜리 오페라>  
<아가멤논 대왕> <대머리 여가수>  
<날 보러와요> <양파> <돌아서서 떠나라>  
등 다수작품 연기 연출



구 민 주 / 테레사 役

1990. 경성대 연극영화과 졸업  
1998. 제16회 부산연극제 최우수 연기상 수상(불 좀 꺼주세요)  
2001. 제19회 부산연극제 우수 여자 연기상 수상(날 보러와요)  
現 극단 '아센' 대표  
작품경력  
<그 여자 이름은 이순례> <이혼의 조건>  
<불 좀 꺼 주세요> <묘지클럽>  
<홍도야 울지마라> <날 보러와요>  
<마담M의 초상> 등 다수작품 출연



최 수 희 / 엘레나 役

1990. 경성대 연극영화과 졸업  
부산연극제 신인연기상 수상  
現 극단 '아센' 정단원  
작품경력 <바람을 찾는 사내> <뽕>  
<오메가 햄릿> <물고기의 축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어느 청년의 귀향> <이혼의 조건>  
등 다수작품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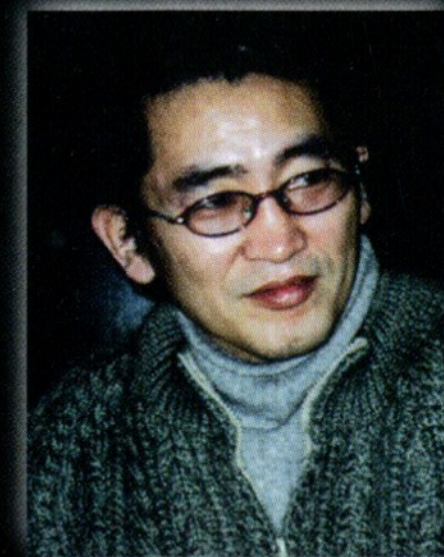


김 희 지 / 어린 테레사 役

동서대 공연예술학부 휴학 중  
現 극단 '아센' 준단원

## 함께한 사람들

## Staff



김 석 응 / 예술감독



박 재 영 / 조명



김 연 주 / 음향



김 정 연 / 진행

